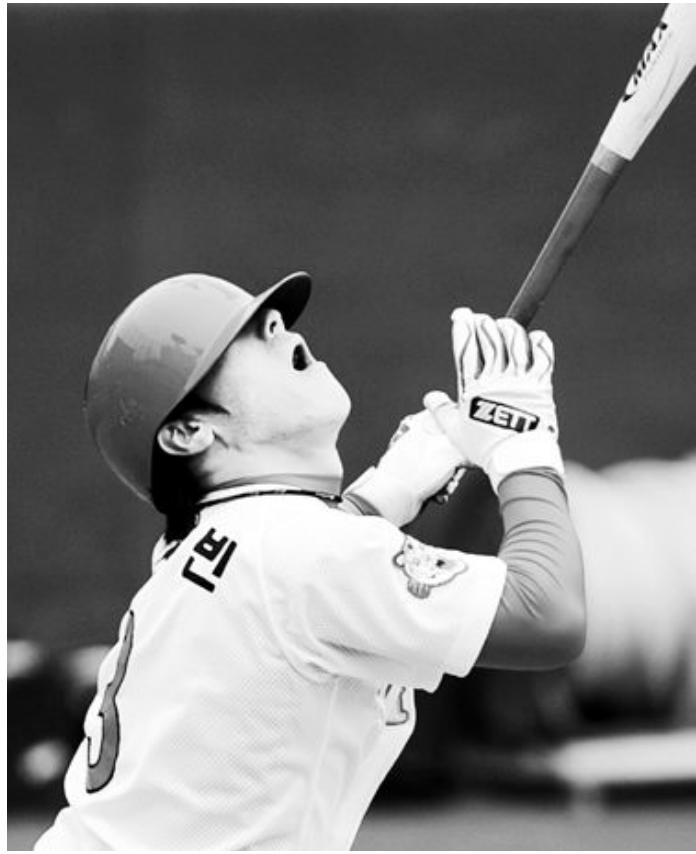




공보다 헬멧이 문제!



164cm의 키에 63kg의 몸무게.

프로야구 선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KIA 타이거즈의 신인 내야수 김선빈은 프로야구 최단신입니다. 같은 팀의 '빅 초이' 최희섭과는 무려 32cm의 키 차이가 납니다. 원활한 체형으로 선수들 틈에서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중학생 같은 김선빈의 모습에 팬들은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기가 작아보니 공을 잡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보다 더 높이, 더욱 멀리 뛰고 달려야 합니다. 힘든 점은 또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크기도 작아 헬멧이 특유의 벅터지고 돌아갑니다.

지난 13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당당히 9번 선발 타자로 나선 김선

빈이 큼직한 헛스윙을 했습니다. 공과 함께 돌아온 헬멧이 물처럼, 헬멧도 물과 따로 움직이면서 얼굴 절반을 덮어버렸습니다.

화순고등학교 출신의 김선빈은 마운드에서 140km가 넘는 공을 뿌리던 투수 이자, 강한 어깨와 빠른 발을 지닌 뛰어난 유격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프로 구단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할 뻔 했습니다.

작은 거인을 꿈꾸는 '날쌘들이' 김선빈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보다 더 험난하고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최단신' 선수에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는 김선빈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냉장고 안은?

'기가 막혀 죽은 사람'과 '얼어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만나 서로가 죽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기가 막혀 죽은 사람'이 먼저 말했다.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아내고 내가 밖에서 망을 보는데 어떤 놈이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뛰어갔는데 아무리 뛰어도 그놈이 없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얼어 죽은 사람'이 무심코 한마디 했다.

"혹시, 김치 냉장고 안도 뛰어 봤소?"

▲인생의 법칙

1. 정류장의 법칙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만 하면 안온다.

2. 신체의 법칙

가려움은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3. 수입 지출의 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뜻밖의 지출이 더 많아진다.

4. 세차의 법칙

큰 맘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온다.

5.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

고장 난 제품은 서비스맨이 당도하면 정상으로 작동한다.

6.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7. 택시의 법칙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만 나타난다. 기다리다 못해 건너가면 먼저 있던 쪽에 자주 온다.

8. 정리정돈의 법칙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9. 사고의 법칙

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난다. 사고 난 사람은 꼭 생생보험에 안 든 사람이다.

10. 인생살이의 법칙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지만 사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부인의 항변

어느 부인이 병원에서 의사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내 남편이 복용할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는 데 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거죠?"

"각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했다.

"내 남편의 능력은 마누라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왜 의사가 처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냉장고 안은?

'기가 막혀 죽은 사람'과 '얼어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만나 서로가 죽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기가 막혀 죽은 사람'이 먼저 말했다.

"부모님, 나 그리고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면 당신은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남편은 한참 생각한 다음에 "부모님"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속으로는 무척 화가 났지만 꼭 참으며 다음 차례는 누구냐고 물었다.

남편은 "아이들"이라고 대답했다.

아내가 이유를 물자 남편이 통영스럽게 말했다.

"아내는 다시 얻으면 돼!"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병원을 찾았다.

그녀를 진찰한 의사의는 그녀에게 처방을 내렸다.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수영을 한번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법칙

1. 정류장의 법칙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만 하면 안온다.

2. 신체의 법칙

에 심재 6단 지나가는 길에 백 232

흑 6단 뒤에 떠났는데 이때 어처구니 없는

사단이 일어났다. 초읽기에 몰린 정

찬근 6단 무심코 흑 233으로 몰아버

린 것이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

로 모는 것이 정수로 백 2 때 3으로

때려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사

고로 인해 그야말로 눈물짓는 계가가

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광주유당자연구회[기자]

결승전

어처구니 없는 사고 12보(225~241)

백 심재육 6단

black 정찬근 6단

